

출산·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서울신문은 8.5일 「태어나면 3560만원...‘아동기본소득’ 추진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‘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’으로 분산된 출산·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.”
 - “새 통합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으로 ‘아동기본소득’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.”
 - “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관계부처 입장 >

- 동 기사에서 언급된 출산·양육급여 통합 및 신규 통합급여 도입에 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찬수 (044-202-3410)
		담당자	사무관	정윤아 (044-202-3429)
	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	진민규 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수 (044-214-2912)